日 방위전략 "北 핵·미사일 본질적 변화 없어"

"中 군사력 급속히 강화… 힘으로 일방적 형상변경 시도"
전쟁 가능 국가 변화 모색…"한국과 폭넓은 방위협력"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이유로 군사 대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이 최근 장기 방위전략 수정을 통해 북한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중국의 군사력 확장 및 강화를 경계한다는 이유로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화를 꾀하고 있어서다.

이에 중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냉전사고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가 지난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영역에서 대규모 특수부대를 보유해 군사 기밀정보를 절취하고 타국의 중요 인프라에 대해 공격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방위대강은 또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는 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본질적인 변화는 생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방위대강은 통상 10년 주기로 개정하는 장기 방위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이례적으로 시행 5년만에 새 방위대강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항공모함화, 원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도입 등 오랫동안 지켜온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반하는 내용을 대거 포함시키면서 특히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 1페이지(전체 30페이지)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높은 수준에서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의 질과 양을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강화하고 있다"며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형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방위대강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의 방위 협력을 추진하면서 연대 기반의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의 연대를 계속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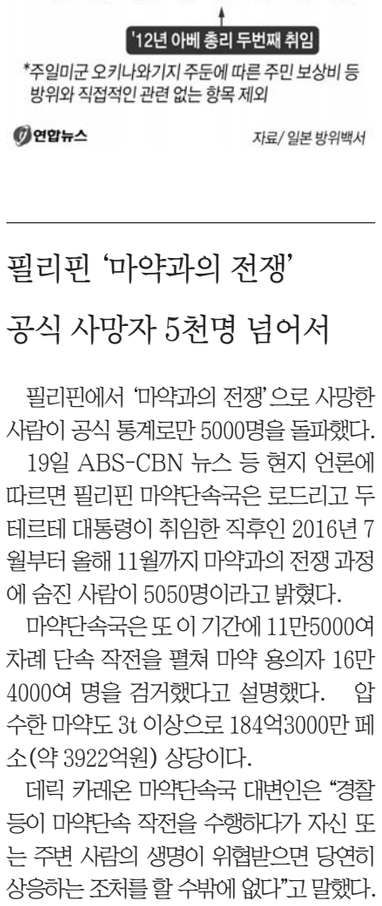
일본의 이번 새 장기방위전략 공식 채택에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과 관련해 "일본이 발표한 이 문서 가운데 중국 관련 내용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며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 건설과 군사 활동에 대해 실제와 맞지 않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이른바 중국 위협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는 냉전 사고가 아직도 남아있음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화 대변인은 "일본의 이번 방법은 중일 관계 개선에 불리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하며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하거나 해당국 대사 등을 초치할 때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쓴다. /연합뉴스



미영일 태평양 공동훈련에 동원 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 /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해군,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는 22일 일본 남쪽 태평양상에서 공동훈련을 한다고 해상자위대가 18일 밝혔다.

3국 해군 및 해상자위대가 공동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간 연대를 과시함으로써 동·남중국해를 중심으로 해상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훈련에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이즈모'와 P-1 초계기, 영국 해군 호위함(프리깃함) '아가일', 미 해군의 P-8A 초계기와 함정 등이 동원된다.

훈련은 전투 장면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각국 함정의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 절차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훈련에 동원되는 해상자위대의 이즈모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전투기를 탑재해 먼바다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로 한 유형의 호위함이다.

영국 해군 아가일은 공동훈련 후 태평양 공해상 등에서 외국 선박의 석유 등을 북한 선박에 몰래 옮겨 싣는 환적(換積) 감시에도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공식 사망자 5천명 넘어서

필리핀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공식 통계로만 5000명을 돌파했다.

19일 ABS-CBN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마약단속국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 숨진 사람이 5050명이라고 밝혔다.

마약단속국은 또 이 기간에 11만5000여 차례 단속 작전을 펼쳐 마약 용의자 16만 4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압수한 마약도 3t 이상으로 184억3000만 페소(약 3922억원) 상당이다.

데릭 카레온 마약단속국 대변인은 "경찰 등이 마약단속 작전을 수행하다가 자신 또는 주변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당연히 상응하는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인권단체는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 재판 없이 이뤄지는 이른바 '초법적 처형' 등으로 희생된 사람이 1만2000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北 비핵화 빠를수록 제재도 빨리 해제"

美국무부 "비핵화 달성 때까지 제재…北 약속이행 확신"

미국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며 북한이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18일(현지시간) 재확인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과 일상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의사소통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최고 지도자급에서 역사상 최초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했다"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의 약속 이행을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대북 제재와 관련, 완전한 북한 비핵화 때까지 세계가 유엔 제재 이행에 있어 일치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이후에 제재 해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북한 비핵화가 빨리 이뤄지면 제재도 빨리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9~2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방한한 것과 관련, 북한 측과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은 없다"며 이 기간 한미 간 조율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난항을 겪는 한미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한미 관계는 린치핀(핵심축)"이라며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중국에 산타는 못 온다

트리·조명 단속 판촉 금지
당국 '크리스마스 금지령'

최근 중국 당국이 지하교회 단속에 열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곳곳에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려졌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명보가 19일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인근 도시인 랑팡(廊坊) 시 도시관리국은 최근 공문을 통해 도시 전역의 상점들이 길거리에 크리스마스트리를 세우거나 장식, 조명을 다는 등 크리스마스 판촉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회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야외 크리스마스 공연이나 종교활동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했으며, 시민들이 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 저녁에는 노점상들이 크리스마스 양말이나 사과, 산타클로스 인형 등을 파는 것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은 지난해부터 본격화했다고 할 수 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중국중앙(CC)TV가 크리스마스 전야 길거리의 넘쳐나는 인파와 흥겨운 분위기를 전하는 등 크리스마스 배척 분위기가 그리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0월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중국 문명의 위대한 부활을 주창한 후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분위기는 확 달라졌다.

중국 공산당은 주요 기관, 대학, 공산주의청년단 등에 성탄절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에 동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와의 전쟁'은 중국이 전 세계에 유통되는 인조 크리스마스트리의 60%를 만들어 수출하는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통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최근 넉 달 새 3곳의 유명 지하교회가 폐쇄되기도 했다.

당국은 지난 9월 베이징 최대 지하교회인 시온 교회를 폐쇄했으며, 이달 9일에는 청두(成都) 시 추위성약 교회를 급습해 왕이 목사를 비롯해 신자 100여 명을 체포했다. 15일에는 광저우(廣州) 시 룽구이리 교회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후싱더우(胡星斗) 베이징이공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크리스마스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사실상 서방문화를 억압하는 것으로, 편협한 민족주의의 발현이자 문화대혁명의 변종"이라고 질타했다. /연합뉴스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